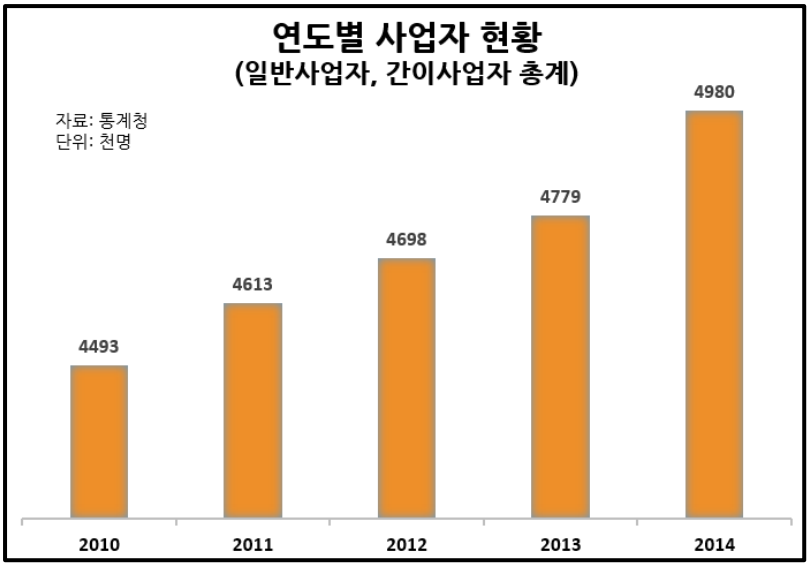
개인사업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할까요?

■ 개인사업자와 은퇴설계

불경기에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, 취업난 등의 이유로 개인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. 그 중 상당수의 개인사업자가 식당을 차리고 있다. 이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, 다른 업종보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.



그러나 시장이 과포화 상태이다보니 제한된 내수시장에서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수익률은 낮고, 폐업률이 높아지는 구조이다. 통계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생존률은 17.4%로, 10명이 창업하면 2명도 살아남기 힘든 구조이다. 더욱이 앞으로의 경기부진을 생각했을 때, 개인사업자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.

개인사업자는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점이 재무설계 시 가장 큰 걸림돌이다. 재무설계는 장기적인 플랜을 꾸준히 실행해야 하는데 안정적인 현금흐름 필수적이다.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현금흐름의 기복이 심해 재무설계 시 어려움이 따른다. 또한 개인사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퇴직연금이 없어 보다 주도적으로 노후를 위한 연금자산을 마련해야 한다.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?

■ 개인사업자의 은퇴설계 시 체크리스트

① 개인연금자산을 많이 확보

- 매월 수입이 일정한 경우에는 매월 적립식 형태로 가입
- 매월 수입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자유적립식 형태로 가입
- 개인연금은 개인사업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안정적인 투자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확정금리부 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

② 은퇴시기를 최대한 늦추기

- 근로자와 달리 운영 사업체의 사업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 가능

③ 여유자금의 분산투자

- 여유자금의 위험 분산과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분산투자가 필요

※ 참고자료

이영권 저,『100세 시대,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』

매일신문, [은퇴설계, 이것만은 챙기자] 개인사업자, 재투자자금 일부 노후자금·연금 갈아타야, 2013.05.21, <http://www.imaeil.com/sub_news/sub_news_view.php?news_id=25230&yy=2013>